

국제빈곤퇴치기여금 운용 현황

2008. 8. 14

외 교 통 상 부

목 차

I. 개 요 1

II. 운용 현황 2

III. 평 가 4

IV. 향후 계획 5

<첨부> 1.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업무수행체계

2. 국제의약품구매기구(UNITAID)에 대한 기여현황

I. 개 요

1. 경 위

- 05.9월 유엔 정상회의 계기 “유엔새천년개발목표(MDGs)” 달성지원을 위한 새로운 개발재원 발굴을 촉구하는 뉴욕 선언문 채택
 - 원조공여국들이 공약한 ODA 증액만으로는 MDGs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, 항공권연대기여금 등 혁신적 재원 발굴 필요성 강조
- 06.3월 “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” 발표시 혁신적 개발재원 확보 추진 계획 표명
- 07.3월 「한국국제협력단법」 및 07.9월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항공권연대기여금 제도 도입
 - 단, 「항공권연대기여금」 대신 「국제빈곤퇴치기여금」 명칭 사용
- 07.9.30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부과·징수 개시

2. 법령 주요내용

- 국제선 출국탑승객에게 국제빈곤퇴치기여금 1천원 부과
 - ※ 기존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등과 함께 항공권 가격에 포함되어 징수
- 기여금은 개도국의 빈곤 및 질병퇴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
- 기여금에 관한 주요 정책 사항 심의·의결을 위해 ‘국제빈곤 퇴치기여금운용심의위원회’ 구성·운영
 - 심의위원회는 외교통상부장관(위원장), 관계부처 차관(기획재정부, 국토해양부 및 보건복지가족부), 한국국제협력단(KOICA) 총재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

II. 운용 현황

1. 기여금 징수 · 관리 현황

가. 징수액 관리 현황

기간	총수입	총지출	잔액
07.10월-08.6월(총 9개월)	약 91억원	약 39억원	약 52억원

나. 1차년도(07.10월~08.9월) 기여금 예상 조성액 : 약 136억원

- 월평균 예상 조성액(11억원) 및 성수기(7,8월) 평균 증가액 등을 기초로 산출

2. 기여금 집행 현황

가. 국제빈곤퇴치기여금운용심의위원회 2회 개최(07.11월 및 08.6월)를 통해 기여금 운용 방향 확정

나. 기여금 운용 방향

- 아프리카 최빈국의 질병퇴치 목적으로 사용
- 이를 위해 국제의약품구매기구(UNITAID) 지원, 우리 NGO 사업 지원 및 아프리카 최빈국 요청 사업 지원을 통해 기여금 집행
 - UNITAID에 기여금의 50% 정도를 지원
 - ※ 국제사회에서 항공권연대기여금은 UNITAID에 대한 재정기여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, 현재 동 기여금을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는 기여금의 90% 이상을 UNITAID에 기여
 - ※ UNITAID는 에이즈 · 결핵 · 말라리아 등 3대 질병치료 의약품을 개도국 빈민에게 저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06.9월 창설

- 기여금의 50%는 우리 NGO의 아프리카 질병퇴치사업 지원 및 아프리카 최빈국 정부에서 요청한 질병퇴치사업에 사용

다. 1차년도 집행계획

- UNITAID에 7백만불(약69억원) 납부
- 우리 NGO의 아프리카 질병퇴치 사업에 총 18.2억원 이내 지원
 - 1차년도 지원대상사업으로 굿네이버스, 세이브더칠드런, 플랜코리아,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등 4개 NGO의 탄자니아, 말리, 세네갈, 우간다에서의 질병퇴치사업 선정
- 수단, 니제르, DR 콩고 등 아프리카 3개 최빈국의 질병퇴치 요청 사업에 총 24.5억원 이내 지원

III. 평 가

1. 새로운 개발재원 시스템의 성공적 도입 · 운영

- 대내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국제빈곤 문제 해결 노력에의 참여 의식을 함양하고, 대외적으로는 혁신적 개발재원 분야에서 선도적 국가 이미지 제고

2. 아프리카 최빈개도국 질병퇴치분야 기여를 통한 “유엔새천년개발목표(MDGs)” 달성 제고

- 현재 개도국에 만연하고 있는 질병을 퇴치함으로써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,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에 기여

3. 대아프리카 지원 확대를 통한 대외원조의 외연 확대

- 우리의 기존 ODA 예산은 정치·외교·경제 등 전분야에서 우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 편중
- 우리 정부의 07년도 전체 무상원조중 아시아,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 비율(잠정)은 각각 34%, 22% 및 18%
-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아프리카 최빈국 지원에 사용함으로써 우리 ODA 예산의 아시아 편중성을 보완

4. NGO 사업 지원을 통한 우리 개발 NGO의 역량 강화

- 우리 NGO들의 아프리카 질병퇴치사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우리 NGO들의 사업역량 및 대아프리카 활동 기반 강화에 기여

IV. 향후 계획

1. 향후에도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50%는 UNITAID에, 50%는 NGO 및 최빈국 요청 사업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용

-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기여금 운용 기간 (2007.10~2012.9) 중 기본 집행 계획을 상기와 같이 확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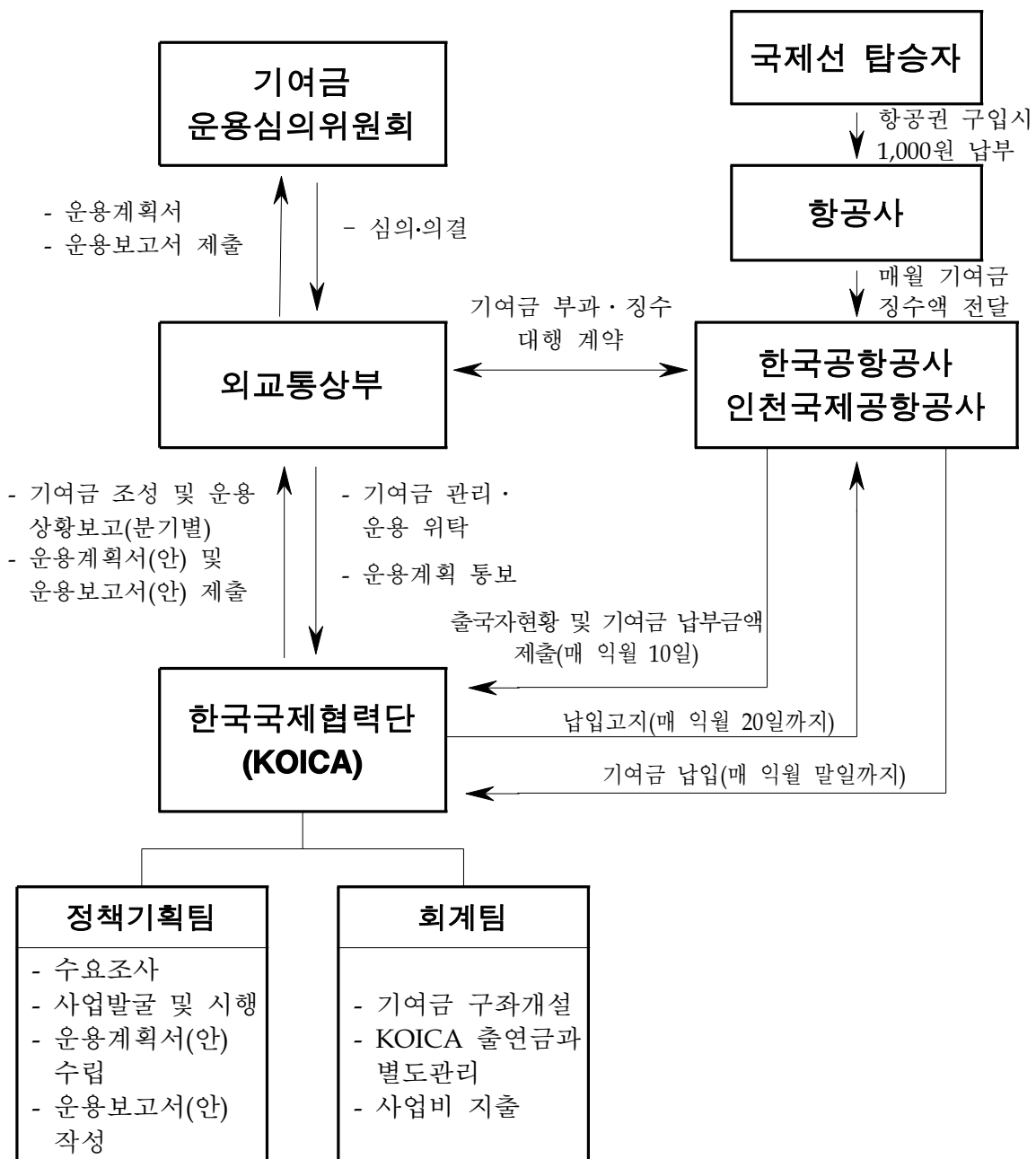
※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법령제정시 5년 시한의 기금으로 제정되어, 5년후 연장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

2. 우리 NGO의 개도국 개발 사업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용

- 우리 NGO의 역량강화를 위해 최빈국 요청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직접 지원보다는 NGO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
- 우리 NGO의 다년도·대규모 사업 지원은 NGO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
- <첨부> 1. 국제빈곤퇴치기여금 관련 업무수행체계
2. 국제의약품구매기구(UNITAID)에 대한 기여 현황

국제빈곤퇴치기여금 업무수행체계



국제의약품구매기구(UNITAID)에 대한 기여 현황

1 기여 경위

- 06.9월 프랑스·브라질·영국 등은 항공권연대기여금 등을 활용한 기금 조성을 통해 3대 질병(에이즈·결핵·말라리아) 치료 의약품을 개도국 빈민에게 저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국제의약품 구매기구(UNITAID) 창설
- 06.11월 우리나라는 제2차 집행이사회부터 집행이사국으로 참여
- 07.10월, UNITAID 기여 등을 목적으로 항공권연대기여금(국제빈곤 퇴치기여금) 도입·운영
- 07.11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운용심의위원회 1차 회의시 1차년도에는 기여금의 50% 정도를 UNITAID에 기여하기로 의결
- 07.12월 제6차 UNITAID 집행이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UNITAID에 대한 08년도 7백만불 기여 계획 발표
- 08.4월 정부는 총 기여액 7백만불 중 1차 기여분 4백만불 납부

2 특기 사항

- 우리 정부의 기여액은 08년도 UNITAID 재원 총액의 약 2%
※ 08년도 UNITAID 총 기여액 약 3억6천만불 중 7백만불 기여
- 7개 집행이사국 중 우리 정부의 기여 규모는 6위
※ 08년도 프랑스 약 2억4천만불, 영국 약 3천만불, 노르웨이 약 2천6백만불, 브라질 1천2백만불, 게이츠재단 1천만불, 칠레 5백만불 기여 서약
- 항공권연대기여금 도입 국가 중 우리 정부의 UNITAID에 대한 기여 비율은 최하 수준
- 항공권연대기여금 도입 국가의 UNITAID 기여 비율 : 프랑스 90%, 칠레 100%
- 항공권연대기여금 미도입국은 일반 예산 및 탄소세 수입 등에서 기여금 납부

〈 UNITAID 기여금 현황 〉

(단위:백만불)

공여국/ 재단	06-08간 총 서약액	연도별 기여(서약)규모			재원 확보 수단	비고
		06	07	08		
프랑스	487	32	213	242	항공권연대기여금 ※ 항공권연대기여금 조성액의 90%를 UNITAID에 기여	
영국	56.7	-	26.5	30.2	환경세 목적으로 부과되는 항공여객세(passenger duty) 수입의 일부	20년 장기서약
노르웨이	47.8		21.6	26.2	항공연료에 부과되는 탄소세 수입의 일부	
브라질	28	6	10	12	일반 예산	항공권연대기여금 도입추진중
게이즈재단	20	-	10	10	일반 예산	5년 장기서약
칠레	11	-	6	5	항공권연대기여금 ※ 항공권연대기여금 조성액의 100%를 UNITAID에 기여	
한국	7	-	-	7	항공권연대기여금 ※ 항공권연대기여금 조성액의 50%를 UNITAID에 기여	
스페인	40	-	20	20	일반 예산	

3 UNITAID 주요 활동

- 06-08년간 3대 질병 퇴치를 위해 총 약 7억3천만불 규모의 기여액 확보
 - 현재까지 에이즈에 약 2억9백만불, 말라리아에 약 3천2백만불, 결핵에 약 3천4백만불, 의약품 사전심사 및 기타 분야에 약 5천8백만불 지원
 - 3대 질병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구를 통해 지원 제공
 - ※ ▷에이즈는 클린턴 재단, UNICEF, WHO, ▷말라리아는 글로벌 펀드, UNICEF, WHO, ▷결핵은 Global Drug Facility, 글로벌 펀드 등의 보건 기구를 통해 지원
- 주로 의약품 대량 구매에 기초한 제약회사와의 가격 협상 등을 통해 의약품 가격 인하와 아동·산모용 치료제 개발 환경을 조성하여 에이즈, 결핵, 말라리아 등 3대 질병 퇴치에 기여
 - ※ 일부 아동용 에이즈 치료제 가격의 67% 인하, 기타 에이즈 2차 치료제 가격 인하 (Abacavir tablet을 이용한 환자 1명당 1년 치료비를 456불에서 364불로 인하, Tenofovir는 194불에서 164불로 인하), 결핵 치료제 가격 인하(Amikacin 1병당 가격을 7불에서 1불로 인하) 등 성과 거양
 - ※ 현재 다수 사업이 07년 하반기에 시작되어 가격협상이 진행 중

- 특히, 3대 질병 분야에서 기존에 지원이 저조하였던 대상(유아 및 산모) 및 의약분야(2차 치료제) 지원에 중점
 - ※ 2차 치료제 : 1차 치료제에 대한 내성으로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을 때 사용하는 약제

4 우리 정부의 UNITAID 활동 참여 기대 효과

- 국제사회의 질병 퇴치 노력, 특히 3대 질병에 대한 지원 확대 노력에 참여함으로써 유엔새천년개발목표(MDGs) 중 '에이즈, 말라리아 등 기타 질병 퇴치' 목표 달성에 적극 기여
- UNITAID의 주요 수원국인 아프리카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아프리카 지원 강화
 - 우리 정부의 07년도 전체 무상원조중 아시아,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 비율(잠정)은 각각 34%, 22% 및 18%.